

투데이

“시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 통해 광주 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나서야”

오늘 빛고을문화관에서 아르코 미래전략 토론회

광주지역의 고유한 문화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선 광주시,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이하 아르코·ARCO), 한국 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주축이 된 가치 ‘문화브랜드 개발위원회’를 구성, 브랜딩 전략과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고유문화브랜드의 개발은 기존의 가치있는 고유문화를 전승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를 끌어내 지역의 고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광욱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2012 아르코 미래전략 대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문화예술회관회 오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시 이전과 한국문화예술회관회의 나주혁신도시(빛가람) 이전을 앞두고 문화예술회관의 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30일(중부권)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아시아문화중

심도시와 빛가람 혁신도시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고유문화브랜드개발’이란 주제로 발표하는 김 연구위원은 “지역고유문화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선 ‘특정지역의 고유한 문화’ 인지, ‘특정지역의 고유성을 담보하는 문화’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문화를 계승하는 콘텐츠로는 시민들과의 소통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임방울 국악제의 경우 광주 출신의 임방울 국악을 브랜드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판소리 예호가들을 양성하고 국악에 대한 저변을 넓히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지역문화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선 다른 도시의 동일한 예술장르를 묶는 ‘수직적 연계’와 특정지역의 다양한 계층과 장르를 아우른 ‘수평적 연계’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가령 임방울 국악제와 비슷한 ‘전주대사승놀이’와 ‘춘향국악제’와의 연대가 수직적 연계라면 전문문화관의 공연프로그램, 국악전수관의 체험프로그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애니메이션, 광주컨벤션뷰로의 관광코스 개발이

수평적 연계”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임방울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광주의 고유브랜드로 키워야 한다는 예기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와 혁신도시를 개발사업만으로 규모가 커 의사결정과 실행단계의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문화브랜드 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기관(광주시, 아르코, 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실행기관(광주문화재단, 컨벤션뷰로)으로 나눠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문화예술회관회 지역이전에 따른 역할 재정립과 지역협력 체계 개편’이란 주제로 발표하는 윤성진 아르코 지역협력팀 사업평가 책임연구원은 “오는 2013년은 문공부의 세종시 이전, 아르코의 혁신도시 이전, 그리고 새 정부의 출범으로 사상 유례없는 ‘문화대변화’이 예상된다”면서 “아르코의 지역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물리적 변경이 아닌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이동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아르코와 지역문화계의 관계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현 문화전문기자 jhpark@

광주서 北·中 합작영화 첫 상영

‘평양에서의 약속’ 내달 8일 개막 광주국제영화제서

오는 11월 8일 개막하는 광주국제영화제에서 북한과 중국의 첫 합작영화인 ‘평양에서의 약속’(원제 아리랑)이 국내 처음으로 상영된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평양에서의 약속’이 최근 통일부의 심의를 통과해 상영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연인원 10만명이 참여하는 북한 집단 체조극 ‘아리랑’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중국인 여성 무용수가 북한을 여행하며 북한 무용수들과 우정을 쌓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처음 공동제작한 영화로 지난 4월 베이징 국제영화

제에서 첫 상영 보였다. 6월에는 상하이 국제영화제에 출품돼 영화제별 매체대상 부문 본선에 올랐다. 올해 12번째를 맞은 광주 국제영화제는 ‘평화를 위한 희망(Hope for Peace)’를 주제로 14개국 55편의 장·단편영화를 상영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시금고 복수로 내년부터 전환

광주시가 내년부터 시금고를 복수금고로 전환한다.

광주시는 “광주시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의 수를 2개(1금고, 2금고)로 하는 내용을 담은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69년 광주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한 이후 지역은행 보호차원에서 44년째 단수금고로 운영해 왔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OCR(광학식 문자판독) 고지서가 수반되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의료급여기금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주택사업 ▲교통사업 ▲광역시청 ▲학생회관시설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철도 사업 등 13개 특별회계를, 2금고는 기금과 OCR 고지서가 필요없는 수질개선, 영산강살리기, 장기미집행,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계를 각각 맡게 된다.

1금고는 시 전체 예산(2012년 기준) 3조5829억원 중 3조4776억원, 2금고는 853억원을 맡게 된다. 1, 2금고의 비율은 9대 1수준이다. 이번 시금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4년이며, 다음달 2일 설명회와 12일 제안신청 등을 거쳐 같은달 30일 예 최종 지정된다.

이승철 광주시 세외수입 담당은 “재정분리를 통한 안정성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및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복수금고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 이자수익은 2010년 89억700만원(일반회계 32억2500만원, 특별회계 등 56억4500만원), 2011년 115억 100만원(일반회계 53억5200만원, 특별회계 등 61억8900만원)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모스크바 간 광주시 세계수영선수권 유치단

강운태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단이 30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FINA(세계수영연맹) 위원 및 관계관 50여명을 초청, 오찬을 가졌다. 강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수영발전을 위한 광주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 광주민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광주시 제9>

광주서 세계비엔날레협회 창설 합의

대륙별 대표자 준비위 구성

세계비엔날레협회가 창설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엔날레대표자회의에서 세계비엔날레협회(IBA·International Biennial Association)

를 창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엔날레재단은 협회 창설을 위해 대륙별 대표자를 선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협회 창설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비엔날레대표자회의에 참가한 50여 개국 70여 명의 대표자들은 전 세

계에서 열리는 150여개의 비엔날레가 정치·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열리고 있는데,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공동연대를 위한 협회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게 비엔날레재단측 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의원 내년 의정비 5084만원

광주시의원의 내년 의정비가 508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4960만원 대비 2.5%가 인상된 것이다.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철환 전남대학교수)는 30일 오후 제2

차 회의를 열고 광주시의원 1명당 의정비를 여론조사 잠정액(5098만원) 대비 0.3% 인하여 5084만원으로 결정하고, 광주시와 시의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2013년도 광주시의원 의정비 잠정액을 5098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를 벌였으나, 높다는 의견이 53.1%로 나타남에 따라 2차 회의에서 5084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UN,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추진 강운태 시장 열정이 ‘潘心’ 움직였다

서울평화상 수상을 위해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9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지난 8월12일 여수세계박람회 폐막식에 참석한 반 총장과 면담에서 ‘광주U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하고 UN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세계 대학인들의 축제인 광주U대회에 남한과 북한이 단일팀으

로 참여하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강 시장은 당시 반 총장이 서울 평화상 수상을 위해 방한하는 10월 국제학술회의에서 ‘스포츠를 통한 평화’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광주U대회 남북 단일팀을 주제로 강연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반 총장이 ‘UN차원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강 시장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이다. 이에 앞서 강 시장은 지난 7월 광

주를 방문한 윌프리드 롬케 UN 사무총장 스포츠특별보좌관을 통해 남북 단일팀 구성에 유엔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었다. 반 총장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롬케 사무총장은 이후 UN의 특사 역할을 하며 남북 단일팀 구성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시 유종성 대변인은 “반 총장이 U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강하게 언급한 배경에는 강 시장의 열정과 노력이 숨어있다”며 “특히, 남북 단일팀을 만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동북아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공동의 인식이 반 총장의 지원을 끌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홍철기자 redplane@

철학연구소원

수강연수 강의로 무료!

현재 무속인 역술철학 운영자 환영!

- 수강종목: 기초부터 완결까지 6개월 천문별빛의 굴절과 인간의 운명, 노력의 결실과 숙명의 한계성 강의, 경천동지할 비술의 세계, 기초에서 완결까지 6개월 실천풍수의 음양택비결, 땅의 성정이 실로 지향하는 바가 정녕 무엇이며, 그 진실과 허상을 증명해 간다. 기초에서 완성까지 6개월

禪의 길: 조각되는 인간의 뇌파와 우주관, 과연 도다는 일도 속명인 것인가? 道の 구극적인 진성은 닦고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 예술품이 아니다. 닦고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 예술품이 아니다. 인식이 증명되는 과정의 지혜강의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포괄적 강의) 자격제한 없음 2012년 10월부터 매주 수 토 일 오후 2~5시

강 의 장 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형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구소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 사 柳無山居士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 시야가 흐릿해지고 코가 건조해지면 발작성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성 풍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한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나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중-4738호